

시중 판매 일부 텀블러서 납 검출

페인트 코팅 제품 24개 조사
유명 브랜드 등 4개 제품서
이용 확산...전수조사 필요

유명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일부 텀블러 제품 겉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 초등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텀블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

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파스쿠찌의 ‘하트 텀블러’와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금속 재질의 텀블러는 표면 보호나 디자

인을 위해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한 제품이 다수며, 이 경우 색상 선명도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첨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표면에 납이 함유돼 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으로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 팩, 위생 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쿨링포그에 무더위 싸~악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16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쿨링포그가 설치된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얼음 비위생 관리...광주·전남 커피전문점 4곳 적발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광주·전남 대형 커피전문점 체인이 식용 얼음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4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mg/l·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를 초과한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남구 방림동 스타벅스커피 광주 방림DT점은 취급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의 4배에 달하는 37.1mg/l이 검출됐다. 무안군 투썸플레이스 전남도청점에서는 161.9mg/l이 검출돼 전국에서 가장 부적

합한 얼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포시 이디야커피 평화광장점(56.6mg/l), 무안군 감성커피 무안남약점(22.6mg/l)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들이 제빙기 세척·소독, 필터 교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한 뒤, 제빙기 사용을 즉시 중단토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공중아당·양성평등당...초등 학생회 선거 ‘정당제’ 눈길

광주 문흥초 정당 선택 투표
학년회장 대신 정당 뽑아
인기투표식 선거 문제 개선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특정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공약을 내건 정당(政黨)에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치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문흥초등학교는 오는 22일 치러질 학생회 선거를 기존 4·5·6학년별로 출마 후보 중 한명을 학생회장으로 뽑는 방법에서, 4·5·6학년 후보가 각각 소속된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정당을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회장 대신 학년별 대표가 결정된다.

이 새로운 선거제도는 지난 4월 문흥초 학생회가 전교생 투표를 통해 도입했다. 기존 학생회가 ‘학생이 없는 학생회’라는 비판을 받고, 선거도 ‘인기투표’로 이뤄지는 등 선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당제 선거는 교내 동아리가 주축으로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에서 학년별 대표를 각 1명씩 출마시킨 뒤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기호 1번 ‘공중아당’은 피구를 좋아하는 정당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피구를 건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티볼을 사랑하는 기호 2번 ‘우리는 빛난당’은 ‘투표를 통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대회를 개최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출마했다.

이밖에 축구동아리 주축의 기호 3번 ‘문흥FC 축구당’은 ‘학생회 중심 축구대회 개최’를, 성(性) 평등을 지향하는 기호 4번 ‘양성평등당’은 ‘교내 성차별적인 학교 시설 개편’을 내세웠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기호 5번 ‘즐거움학교당’도 ‘첫눈 올 때 반끼리 영화 보기’ 등 정당 특성에 맞는 이색공약을 내세우며 열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흥초 관계자는 “현대 민주주의의 꽃은 정당”이라는 말처럼 초등학교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식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제도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검찰 ‘공안부’ 56년만에 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 공안 정세분석 등 업무 폐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查部)로 이름을 바꾼다. 또 ‘공안 정세분석’ 등의 업무도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 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꾼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됐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 기획관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사 1~3부로 바뀐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또 선거·노동 분야까지 사용해 왔던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다.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꾼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됐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 기획관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 부서에서는 ‘공안·노동 정세조사 업무’를 하지 않고,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고 1973년에는 대검에도 들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발행될 간부급 인사 때부터 공공수사부장 등 새로운 이름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국 모든 중·고교 탈의실 설치된다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중·고등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중·고등학교 385곳 중 탈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218곳(57%)으로, 설치율이 경기(53%)와 경북(53%)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광주지역 중·고교 157곳 중 탈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124곳이다. 전국적으로는 중·고등학교 5690곳 중 1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탈의시설이 설치된 학교들도 상당수가 학교 전체에 탈의시설이 1개 있는 등 충분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을 검토·적용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0

해질녘 19:47

달맞이 20:10

달저녁 05:30

또 찾아온 장맛비

차차흐려져 오후부터 비 내리겠다.

광주	차차흐려져비 22/29	보성	차차흐려져비 20/26
목포	차차흐려져비 22/28	순천	차차흐려져비 22/29
여수	차차흐려져비 22/26	영광	차차흐려져비 20/29
나주	차차흐려져비 20/29	진도	차차흐려져비 21/27
완도	차차흐려져비 21/27	전주	차차흐려져비 22/31
구례	차차흐려져비 20/30	군산	차차흐려져비 22/29
강진	차차흐려져비 21/27	남원	차차흐려져비 20/30
해남	차차흐려져비 20/28	흑산도	차차흐려져비 20/25
장성	차차흐려져비 20/29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	동~남동	0.5~1.0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1.5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5
면바다(대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면바다(대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58 19:51	02:43 14:30
여수	03:25 15:15	09:14 21:59

◇주간 날씨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2/26	22/29	23/30	23/29	23/29	23/33	23/29

◇생활지수

경고

매우 높음

보통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